

전시·회의 개최 지급 인센티브 기준 간소화

전주시, 세미나·포럼·학술대회 등 30명 이상 행사 개최시 최고 2500만원 한도 차등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인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주에서 전시·회의를 개최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규모 행사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전시·회의 개최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지원기준 및 내용을 대폭 간소화해 30명 이상의 국내외 전시·회의 개최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등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단체, 법인, 기관으로, 시는 국내 회의와 국제회의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최고 2500만 원 한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코로나19 상황과 소규모 행사 개최를 지향하는 현 추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시는 세분화된 인센티브 산출기준표에 의한 증빙의 어려움이 있다는 행사 주최측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등록 및 숙박 인원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참가자 등록부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관광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063-281-2809)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시는 전주에서 크고 작은 전시·회의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학회 관계자

를 초청한 팸투어를 개최하는 등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행사 유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대한전자공학회 심포지엄을 유치했으며, 아태미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등 국내 MICE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지역 대학 및 기관을 방문해 홍보하는 등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윤상기자

청소년 마음 근육 키우기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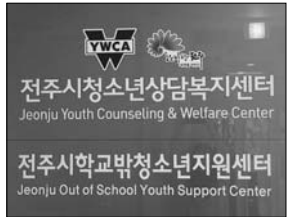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학기 대비 상담주간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린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장기화 및 4차 유행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청소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2021년 2학기 대비 상담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주간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최근 사이버상담간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정신건강 ▲가족 ▲학업 /진로 ▲대인관계 호소문제 순으로 상담건수가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에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불안·우울,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중·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지원 ▲지역사회 기관 연계 ▲부모교육 ▲심리검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9월 9일까지 임시 휴관 중이며, 관 기관에서 내방상담 대신 전화상담과 온라인·문자 상담으로 대체해 상담을 하고 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비대면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2학기 전면등교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다시 대면활동이 어려운 전주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주제로 세우는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이용은 '청소년상담전화(1388)' 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227-1005)로 문의하면 되며,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 운영

치매 예방 운동법·자가 진단법 등 치매 관련 정보 제공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을 위해 간단한 검색으로 치매 예방이 가능한 치매 예방 운동법, 치매 자가 진단법, 치매안심센터 소개 등의 유익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대1 채팅을 통해 치매예방 등

에 대한 최신 정보뿐만 아니라 전주시 치매안심센터 지원 서비스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치매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또 치매예방 인지 재활 프로그램 학습지를 제작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학습지의 내용은 ▲기억력 학습 ▲계산력 훈련 ▲집중력 학습 ▲분류하기 ▲문제해결력 훈련 ▲연상하기 등의 치매 예방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

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다양한 건강정보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치매안심센터 카카오톡 채널은 현재 34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누구나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전주시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6월과 7월 치매예방 꾸러미와 인지재활 프로그램 학습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화 안부와 모니터링 등 비대면 치매 관리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발, 보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어르신들의 정서 지지와 인지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 걱정 없는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 무료검진 ▲치매환자 등록 ▲치매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 가족자조모임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 도움물품 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29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시민들과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합동단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한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을 대상으로 야간 단속에 나선 결과 ▲사적모임 집합금지 위반 1건 ▲마스크 미착용 및 공원 내 음주 행위 2건 등 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경찰,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린 시는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학교 인근, 서신동·우아동 상업지역 등 8개 권역에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 4단계 상황으로 평소와 비해 불편이 많겠지만 코로나19 위기를 조기해 종식한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2021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희망자 122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39세)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무 시간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이다. 임금은 시급 87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 등 DB 구축사업 ▲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운영 지원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56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충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